

청소년 성매매 문제 공동 대책위 준비모임 회의록

일시: 2015. 4. 20. 월. 19:00

장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실

작성: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참석자:

[REDACTED]

[REDACTED] 조진경 대표, 권주리 사무국장)

1. 19시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준비모임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 각자 인사하다.

2. 조진경 대표가 청소년성매매 문제 현안에 대해 간단히 발제하고 공동대책위 구성과 활동에 대해 논의하다.

3. 결정사항

1) 명칭은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으로 하기로 하다.

2) 현 참석기관 및 참석자들을 공동행동 집행위원으로 하기로 하고, 각 기관별로 공동행동 참가단체를 모집, 구성하기로 하다. 참가단체 확대에서 청소년인권단체 등에 참가의사 확인해보기로 하고, 의원실 결함은 필요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다.

3) 이를 위해 성명서 초안을 박숙란 변호사가 작성하기로 하고, 다음 모임은 4월 29(수) 오후 2시부터 탁틴내일 회의실에서 열기로 하다.

4) 공동행동 발족은 살해 피해자 49제에 맞춰 5월 2째주 정도에 추모제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음

5) 비슷한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수집하여 사례들을 모아 이슈화하는 방식을 공동행동의 향후 활동 중 하나로 하기로 함. 이를 위해 Hot Line 설치에 대해 고려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음

6) 알선자의 경우, 단순히 아청법 위반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형법으로 적용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고, 공동행동이 꾸려지면 수사

기관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등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확인하기로 함

7) 다음 회의에서는

① 성명서 초안 검토

② 각 단체별로 향후 공동행동에 대해 각 단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구상해 오기로 함

③ 사건 파악이 중요하고, 기사 모니터링 후 분석, 참석 변호사들은 언론내용 분석하여 법적 검토사항 정리해서 오기로 함

청소년 성매매 문제 공동 대책위 준비모임

일시: 2015. 4. 20. 월. 19:00

장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실

참석자: [REDACTED]
[REDACTED], 십대여성인권센터, [REDACTED]
[REDACTED]

취지

- 1) 2015. 3. 26. 관악구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청소년성매매 문제 공동 대응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기사 자료 참조)
- 2) 위 사건만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정책제안, 대책마련
 - 청소년 단체/ 성매매 단체의 분리로 인해 공동대응이 미비함.
 - 정부/경찰 내 전담 부서 부재, 아청법 등 법률개정, 사이버상 대응체계 부재, 지원 체계,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등 현안

청소년성매매 문제 현안

- 1) 아청법 개정의 문제
 -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장 삭제
 - 피해자 보호 지원시스템 부재 등(통합지원상담소)
 - 가해자 처벌 미비, 관리체계 부재
 - 국선변호사 제도
 - 성폭력, 성매매 피해에 대한 상이한 시각, 불평등한 처분
 - 성매매 피해로 인한 임신중절 불법
 - 음란물
 - 함정수사
- 2) 정부/경찰 내 전담 부서 부재
 - 강제, 강요없었다는 점에서 성폭인정 안됨, 대가성 인정안된다는 점에서 성매매 인정 안됨
 - 전담 부서 부재로 인한 정책, 대책 수립 부재
 -

3) 사이버상 대응체계 부재

- 학교에서 핸드폰 제한, 스마트폰 앱 감시가 대책의 전부?

-

4) 실태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음

5) 지원체계의 분절, 책임지고 있는 지원체계 전무

- 청소년 단체, 성매매 단체

- 아동청소년

안전

1) 공동대책위 구성과 활동

2)

(가칭)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제안서

1. 진행 개요

- 2015년 3월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벌어진 성 착취 피해 청소년 살해사건 발생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늦었지만 수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고, 이후 청소년 성 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4월 20일, 1차 대책위 준비모임에서는 명칭을 '(가칭)관악구 성 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결정했으며, 공동행동의 향후 방향을 정하고 성명서 초안 작성 역할 분담, 사례연구 및 분석의 필요성, 사무국 말을 단체에 대해 논의함
- 4월 29일, 2차 공동행동 준비모임 회의에서는 성명서 초안 검토와 기사를 분석하여 법적 검토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후 사무국, 발족기자회견 일정, 제안할 단체에 대한 역할분담을 함
- 5월 8일 이사건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기사가 게재되어 첫 공판정보를 확인 (5/20(수)오전 11시)
- 발족 기자회견 일정을 5/20(수) 오전10시로 의견 수렴하여 확정함

2. 목적

관악구 성 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여 알선자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도록 하며, 이후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다.

3. 참여방식

- 성명서에 대한 동의 및 공동행동에 대한 동의 단체로 단체명 게재
 - 모니터링 및 기자회견에 가능한 경우에 참여, 이후 대책에 대한 지지의사 표명
- 공동행동 주관단체로 참여
 - 재판 모니터링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 참여, 이후 회의를 통해 합의된 활동에 참여
 - 분담금 납부 (10만원)

4. 진행내용

- 공동행동 주관단체 참여 현황 : (사)탁틴내일, 십대여성인권센터, 들꽃청소년세상,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재단법인 동천
- 논의내용 : 사무국은 탁틴내일, 들꽃청소년세상과 십대인권센터가 지원해줄 실무자 1명 파견, 성명서 논의내용 반영 추가안 작성 5/11(월)발송, 변호사의 법적추가 제안사항 반영 후 5/20(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 대책촉구 및 공동행동 발족 선언 기자회견 개최하기로 함, 기자회견 행사 계획초안을 가지고 사전 실무자 회의 진행 예정.

5. 단체 참여에 대한 회신

- 기한 : 5/15(금) 18시까지
- 양식 : 붙임자료 참고붙임) 회신양식

단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메일	

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살해사건 공동성명서

1. 2015년 3월 26일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에 의해 살해된 청소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이 사건에 분노한다.

지난 3월 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 김씨(37세,남)에 의해 14세 청소년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수면마취제를 들고 다니며 성매매 피해자들을 기절시킨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살해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청소년 성매매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번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는 이처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성착취 범죄와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잔혹함에 깊이 분노한다.

2.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바로 성매수자, 성착취 인신매매 알선자, 채팅사이트 운영자, 모텔 업주, 그리고 이에 대해 무관심했던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이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된 3명의 알선범죄자들은 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하고 감시, 관리·감독하면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매수자에게 연결하여 성매매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피해청소년의 죽음은 가출 후 선택한 일명 ‘조건만남’을 하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성을 착취한 성매수자,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감시, 지배하면서 성매수자에게 연결한 성매매 알선자, 성착취를 용이하게 익명성을 보장한 채팅사이트 운영자와 모텔 업주, 그리고 이에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 모두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성착취가 자행되는 현실로 내몰고,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한 상황을 만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3.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 채팅사이트 운영자, 모텔 업주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 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은 살해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그 동안 방관되었던 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성

매수자, 성매매 알선자, 채팅사이트 운영자, 모텔 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과 재판을 통해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현재 수사 중인 모텔 업주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자와의 결탁은 없었는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됨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하였는지도 명확히 밝히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4.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나아가 국가와 사회는 앞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하라.

이 사건은 단순히 십대 소녀가 살해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다. 현재까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아닌 “성매매 대상청소년”으로 인지되어 피의자로 조사 받고 보호처분에 처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역시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청소년”이 아닌 피의자 신분인 “대상청소년”으로 간주되어 조사받고 보호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보호처분도 처벌로 인식되기 때문에 성착취 피해청소년은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큰 위험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자로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인정하는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구조와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유인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대부분의 청소년 성매매는 채팅사이트 상 유인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이를 규제하는 대책은 미비하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 성착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 감청이나 유도수사기법 등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어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날로 다양화 되고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성착취 유인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성매수범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수사 및 재판실무를 개선하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형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수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66%로 매우 높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3년 미만의 선고형이 66.3%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통계). 즉 법집행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수범죄가 가볍게 다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수범이 확실하고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실무 개선이 시급하다.

넷째, 청소년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담체계와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라.

한해 가출한 청소년 20만명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성착취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마련하고 경고문구 알림, 성인인증 강화 등 인터넷채팅사이트와 채팅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과 구조 지원, 보호 및 치료 회복 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13 일

공동주관 (사)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사)두루, (사)들꽃청소년세상, (사)탁틴내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재)동천,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상을품은아이들, 수원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다시함께상담센터

참여단체 (사)막달레나공동체, (사)수원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피해상담소어깨동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Wing,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악교육복지센터,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구립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그룹홈들레가정, 그룹홈새꿈터, 그룹홈 새밭토끼풀가정, 그룹홈 아모LED코스모스가정, 그룹홈아모그린텍장미가정, 그룹홈아모센스참나리가정, 그룹홈아모텍진달래가정, 그룹홈야긴새벽이슬가정, 그룹홈오디가정, 그룹홈인애해바라기가정, 그룹홈한신예수가정, 꿈꾸는아이들의학교,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회,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너머서,

대전광역시청소년드롭인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들꽃
피는학교, 마인하우스, 모퉁이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천무한도전학교, 부
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청
소년일시쉼터, 서울시립신림청소년쉼터,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위기청
소년교육센터, 서울학교사회복지사협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심디딤돌쉼터, 소냐의
집, 심리상담 내디딤, 쌍문청소년문화의집,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안산시청소년남자
쉼터, 여울여성희망센터,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우리들쉼자리,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유프라시아의집,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장애여
성공감성폭력상담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공동체
물푸레나무,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땡땡, 청소년자립팜이
상한나라, 청소년자치연구소, 커피동물원,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의샘, 한국
여성의집, 한국YMCA전국연맹, 한신쉼터, 함께걷는아이들, 휴먼케어센터, 휴샘상담
센터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발족경과 및 선언문

지난 3월 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 김씨(37세,남)에 의해 14세 청소년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청소년 성매매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번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청소년 성매매가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가출 후 성매매에 유인되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성착취 피해 청소년’으로서 보호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던 관련 청소년·여성 단체들은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가해자와 알선자등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고, 이후 더 이상의 청소년 성 착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4월 20일, 1차 준비모임에서 ‘(가칭)관악구 성 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기로 하고 4월29일, 2차 준비모임에서 공동주관단체로써 ‘탁틴내일’, ‘들꽃 청소년세상’, ‘십대여성인권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동천’ ‘두루’등이 공동주관단체로 성명서의 내용과 같이 향후 방향을 정하였다.

그리고 오늘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희생당한 청소년을 추모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정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발족기자회견을 열며 선언한다.

청소년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갈수록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교묘해지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와 정부는 더 이상 청소년들이 성착취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폭력과 범죄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성 착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 및 재판 실무 체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2.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날로 다양해져 가는 성착취 유인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요구할 것이다.
3.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체계와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촉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근본대책을 함께 논의 하여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협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희생당한 청소년이 부디 하늘에서나마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염원하며 현실에서도 청소년들이 이러한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5. 5. 20

(가칭)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가칭)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보도자료	(사)탁틴내일(사무국)	■■■■■■■■■■	■■■■■■■■■■
	(사)들꽃청소년세상	■■■■■■■■■■	■■■■■■■■■■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권주리	02-6348-1318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
배 포 일	2015년 5월 18일		
매 수	총 2매		
공동 주관 단체	(사)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사)두루, (사)들꽃청소년세상, (사)탁틴내일(사무국),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재)동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상을품은아이들, 수원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다시함께상담센터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 엄정한 처벌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촉구한다!”

-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발족-

(가칭)관악구 성착취 피해청소년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015년 5월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희생당한 청소년을 추모하고 엄중한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지난 3월 26일 관악구 모텔에서 14세 청소년이 살해당한 사건은 청소년 성착취로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 해당 사건은 성매수자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자, 채팅사이트 운영자, 모텔업주 등이 연결된 복잡한 문제이며 가출위기의 청소년들을 성착취

취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었다.

- 이에 17개 청소년·여성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주관 단체를 포함하여 총 94개의 단체가 청소년 성착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탁틴내일이 사무국을 맡아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한다.
- 공동행동 발족식은 10시 추모묵념으로 시작하여 성명서와 발족 선언문 낭독과 참여자의 발언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다’라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도 진행 한다.
- 모든 순서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이 날 있을 관악구 성착취 피해 청소년 살해사건 피고인의 두 번째 공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 앞으로 공동대책위는 공동성명서와 발족선언문을 통해 밝히듯이 해당 사건의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성매수자와 알선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고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 청소년 성매매관련 범죄의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실무 개편을 촉구함과 동시에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규제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 그리고 전담체계를 통한 예방 및 피해자 구조 지원시스템 마련을 촉구할것이다.
- 그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살해 및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붙임 : 1. 공동성명서
2. 발족선언문
3. 기자회견 일정표

공동행동 서명 창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5년 3월 26일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14세 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및 성매매 이용으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검거된 용의자와 알선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이며,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속적으로 본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며 **청소년성매매는 성착취임**을
우리사회가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더 이상 이 같은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이하 공동행동/95개 관련단체/2015.05.20.)을 발족하게 되었고,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진행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청소년 성착취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성착취 재발방지 서명하기

성착취 재발방지 1인 시위



십대여성인권센터
Street Up Apollon Soc. Trafficking of Minors

☐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않음.